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2.25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원/달러 환율
1,444.50원 (+4.50원)

KOSPI
5,969.64 (+123.55, +2.11%)

KOSDAQ
1,165.00 (+13.01, +1.13%)

국고채 10년 금리
3.593 (+0.015%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	공사채 약세 시사점 [김상만]
Global Quant	관세 리스크에도 우호적인 경기 여건에 시클리컬 업종 선호 [이철현]

기업분석

KG모빌리티	2026년 및 중장기 사업계획 IR 핵심내용 정리 [송선재]

산업분석

화학	IEEPA 위법 판결은 수요 개선의 트리거 [윤재성]

글로벌리서치

AI & 보안	사이버보안 주가급락, 노이즈를 걷어내면 보이는 것들 [김재임]
재팬토바코	4Q25 Re: 매출 기대치 상회 [심은주]
중국 AI	2분기 중국 AI 업종 투자 전략 [백승혜]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KB금융, SK이노베이션, 삼성증권, 대한항공, 아이에스동서, 에코프로비엠, 하림지주, 시지에드텍

하나증권

CrediVille

공사채 약세 시사점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상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수급 부담은 현실이다

구정 연휴를 전후로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신용스프레드 또한 보합세로 전환되는 등 새로운 방향성 모색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는 신용스프레드와 지표금리 간의 동행성이 높아져 있기에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 신용스프레드도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용스프레드 하향 안정화의 전제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어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름 아니라 공사채 약세 현상이 그것이다. 신용스프레드가 짧은 연초효과를 마무리하고 상승세로 돌아선 지난 한 달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면 여전채의 스프레드 확대폭이 가장 컸지만 공사채 또한 여전채 못지않게 확대폭이 커지면서 은행채 금리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근래에 공사채가 은행채보다 약세 현상을 보였던 시기는 2022년이었다. '22년 연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앙등에 따른 원가부담을 판가에 전가시키지 못한 한전의 채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공사채의 수급 및 가격 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이다. 당시 금리역전은 7월에 잠시 재역전되었다가 연말로 가면서 레고랜드 사태 발발로 역전폭이 더더욱 커진 바 있다.

금번 공사채의 약세 현상은 기본적으로 '22년과 유사한 메커니즘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지금은 발행 주체가 특정 공기업에 집중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발행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아직 (연초이기도 해서) 공사채의 절대 발행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예고(?)된 수급 부담에 대한 우려가 가격(금리)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공사채 발행(증가)과 관련된 주요 경로는 3가지로 요약된다. 1) 정부보증채(첨단+공급망), 2) 일반 공사채, 3) 지방공사채가 그것인데 2)/3) 항목은 사전에 발행 규모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1)의 경우에는 그나마 발행 한도(25조원+α)가 정해져 있어 예측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잠재적 추가 발행인 α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리고 위 3가지 영역을 공통으로 관통하는 핵심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주도발전"이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은 '22년과 달리 금리 인상 사이클도 아니고 '22년에 대두된 부동산 PF 문제와 같은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부정요인 또한 제한적인 상황이기는 하다. 하지만 공사채를 중심으로 한 수급적인 부담은 현실적인 과제로 각인되면서 가격에 불리하게 반영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신용스프레드는 10~20bp 가량 상승하면서 Yield Ratio 지표는 다소 개선된 상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향후 신용스프레드가 하향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이전 일차방정식(시장금리 하향 안정화)에서 이차방정식(+공사채 약세 현상 해소)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시장 전체를 둘러싼 투자여건(머니 무브, 위험자산 선호) 또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 판단된다.

2026년 02월 25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Quant

관세 리스크에도 우호적인 경기 여건에 시클리컬 업종 선호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철현 lch2678@hanafn.com

미국 증시는 로테이션 국면 내 변동성 상승 및 하방 헷지 수요 증가

미국 증시의 로테이션 장세 속 업종간 명확한 성과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금융과 IT 업종이 부진한데, 이들은 AI 발 비즈니스 모델 위협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경기민감 업종인 에너지, 산업재, 소재, 업종은 고점 부근을 유지 중이다. 다만, 경기소비재 업종은 테슬라와 아마존이 부진한 영향이 크고, 이를 제외하면 성과는 양호하다. 그럼에도 AI 관련 기술주 조정 영향과 더불어 이란 갈등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초래한 변동성 상승으로 VIX는 높은 수준이다. 하방 헷지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며 증시 센티먼트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S&P 500의 0.25델타 옵션의 내재변동성으로 계산된 Normalized Skew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2년 내 상단을 테스트하고 있다.

IEEPA 위헌 판결은 미국 정치의 균형과 견제 시스템 확인

관세 불확실성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보편 관세를 15%로 상향한다고 했으나, 이는 최대 150일(7월 24일) 간 유효하며 이후 의회의 승인도 필요해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품목별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는 판결에 영향이 없고 관세 환급 문제도 지리한 행정소송 때문에 즉각 긍정적인 Catalyst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미국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며 단기적인 변동성만 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통해 미국 정치의 균형과 견제를 재확인했기에 장기적으로 미국 정책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우호적인 경기 상황을 기반으로 소재, 에너지, 금융 업종 선호

견조한 미국경기 확장의 신호가 지속되고 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고용지표, 안정된 CPI, 견조한 소비 지출을 확인했다. 기대에 못미치는 4분기 GDP 성장은 대체로 정부 셧다운 영향에 따른 지출 감소 영향이 크다. 1월 ISM 제조업 PMI도 3년 간의 경기위축을 딛고 52.6으로 1년만에 50선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ISM 제조업 PMI가 50을 돌파한 뒤 1개월 및 3개월 성과를 살펴본 결과 소재, 에너지, 금융과 같은 경기민감 업종이 S&P 500을 상회했다. 다만, 산업재도 연초 이후 높은 성과를 올린 업종이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이 압박을 받는 현 증시에서 높은 기대수익률에는 부담이라는 판단이다.

증시 로테이션 국면에서 Risk-on의 선호도가 바뀌었다. 테크 및 AI 관련주가 조정을 받고 있고, 성장주와 가치주의 성과가 뒤바뀌며 높은 밸류에이션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 & 엔지니어링, 금속 & 광업, 에너지, 기계, 전기장비, 화학제품, 건축제품 등의 경기민감 업종 세부 산업이 향후 지수를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6년 2월 25일 | 기업분석

KG모빌리티 (003620)

2026년 및 중장기 사업계획 IR 핵심내용 정리

Not Rated

목표주가(12M)	N/A
현재주가(2.24)	4,05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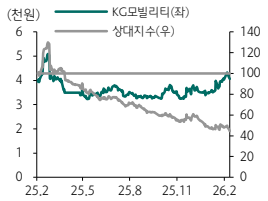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969.64
52주 최고/최저(원)	4,755/3,225
시가총액(십억원)	820.6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202,374.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408.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9.6
외국인지분율(%)	18.85
주요주주 지분율(%)	
케이지에코솔루션 외 2 인	54.36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2,429	3,434	3,736	3,905
영업이익	(261)	(112)	13	1
세전이익	(266)	(62)	(3)	35
순이익	(266)	(60)	9	34
EPS	(17,223)	(1,071)	48	175
증감율	적지	적지	흑전	264.6
PER	(0.5)	(8.2)	180.8	21.5
PBR	(1.4)	1.5	1.5	0.5
EV/EBITDA	0.0	14.1	9.2	5.6
ROE	268.5	(5.5)	0.8	2.4
BPS	(6,414)	5,846	5,791	7,233
DPS	0	0	0	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minahkang@hanafn.com

2025년 Review: 판매대수 글로벌 +1% (YoY), 영업이익률 0.8% 기록

KG모빌리티의 2025년 글로벌 판매대수는 110.5천대(+1% (YoY))를 기록했는데, 내수가 40.2천대로 15% (YoY) 감소했고, 수출(CKD 포함)이 70.3천대로 13% (YoY) 증가했다. 내수는 수요부진과 경쟁심화의 영향으로 부진했고, 수출은 서유럽/아중동 지역 위주로 신차 출시 및 신시장 개척으로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내연기관차가 24% (YoY) 감소한 72.9천대, HEV/EV는 156% (YoY) 증가한 35.9천대, CKD는 1.7천대를 기록했다.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영업이익은 43,036억원/362억원(영업이익률 0.8%, +0.8%p (YoY))을 기록했다. 물량(+1%) 및 환율/믹스에 따른 ASP 상승(+9%)으로 매출액이 10% (YoY) 증가한 가운데, 이산화탄소 패널티 환입 효과의 축소와 마케팅 비용 증가에도 재료비(-0.5%p)/인건비(-1.0%p)/기타고정비(-0.8%p)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익률이 상승했다.

2026년 가이던스: 판매대수 +24%, 영업이익률 2.2% 목표 중

KG모빌리티는 2026년 사업계획 목표로 '판매대수 137.3천대(+24%), 매출액 5.0조원 이상(+18%), 영업이익률 2.2% 이상(+1.3%p)'을 제시했다. 판매목표 중 내수/수출이 각각 42.0천대(+4%)/82.0천대(+20%)이다(나머지는 CKD). 수출 중 유럽은 소폭 감소하지만, 아중동/아태/중남미에서 확대를 기대 중이다. 매출액 증가, SUV/친환경차 중심의 믹스 개선, 재료비/연구개발비 등의 절감 등으로 수익성 개선을 목표이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KD 사업 본격화 및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KD 사업 중 베트남 KLMH는 연간 5만대 생산능력 중 1.5만대를 KG모빌리티에서 사용한다. 렉스턴/무쏘/액티언 위주로 2026년/2027년 8.0천대/10.0천대 생산을 목표 중이다. 사우디 SNAM은 0.7억달러 투자금액으로 연간 3만대 생산능력이고, 렉스턴/무쏘 위주로 2026년/2027년 3.3천대/8.0천대 생산을 목표 중이다. 친환경차 라인업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총 7개 모델을 출시(2026년 1개, 2027년/2028년 각 2개, 2029년/2030년 각 1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략들이 성과를 내면, 2030년 '글로벌 판매대수 200.0천대, 매출액 7.3조원(수출 60% 이상), 영업이익률 5.0% 이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당은 영업이익 1천억원 이상을 달성할 경우 개시하는데, 2026년 사업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배당성향 10%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제시. 주가는 사업목표 달성을 검증하면서 반영해갈 것

KG모빌리티 주가는 현재 P/B 0.5배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 중이다. 절대적인 이익률이 낮고, 외부 환경에 영향이 큰 구조이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판매대수/매출액 증가에 기반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고(EPS 개선과 낮은 Multiple의 해소), 2차적으로는 전기차/자율주행차 등의 기술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이익 체력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적극적인 사업목표를 제시한 바, 주가는 일시적으로 기대감을 반영한 후 사업목표의 달성을 검증하면서 추가 반영해갈 것이다.

2026년 2월 25일 I 산업분석_Update

에너지/화학

IEEPA 위법 판결은 수요 개선의 트리거

에너지/화학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2월 24일

S-Oil(010950)
BUY | TP 130,000원 | CP 114,100원

SK이노베이션(096770)
BUY | TP 170,000원 | CP 137,700원

금호석유화학(011780)
BUY | TP 180,000원 | CP 151,100원

효성티앤씨(298020)
BUY | TP 510,000원 | CP 378,000원

KCC(002380)
BUY | TP 600,000원 | CP 611,000원

롯데정밀화학(004000)
BUY | TP 60,000원 | CP 51,400원

대한유화(006650)
BUY | TP 200,000원 | CP 190,700원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IEEPA 위법 판결은 인도/베트남/중국의 실효 관세율 하락 및 수출 확대 트리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3~4년 간 이어진 정유/석유화학 수요 부진은 고물가/고금리에 더해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아시아 주요 수출국의 대미 수출 충격이 더해진 영향이었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기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Section 122의 15% 임시 관세 및 Section 232/301 기반의 관세 체계 재정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효 관세율 하락으로 이어져 해당국의 수출 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실제, 2/23일 ING는 보고서를 통해 최대 수혜 국가로 인도/베트남을 지목한다. 인도는 징벌적 관세를 포함한 상호관세 50% 영향으로 섬유의복 등에 대한 대미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최근 양국은 상호관세 25%를 18%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으나, 이번 위법 판결로 Section 122 기반 15% 관세 체계로 전환되면서 기존 논의 대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ING는 인도의 실효 관세율 약 5.6%p 하락을 추정한다. 저부가가치 소비재인 의류/신발/장난감 등을 수출하던 베트남 또한 명목 관세가 20%에서 15%로 낮아지며 Section 122 체계에서 실효관세율이 약 2.8%p 축소될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의 경우 Section 122/Section232 등을 반영하면 실효 관세율이 6.2~7.1%p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나, 신규 보복 관세 도입 가능성을 감안하면 아직은 불확실성은 상존한다.

이번 사이클을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할 이유

최근 3~4년 간 춘절 전후 반짝 시황 개선에 여러 번 실망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사이클을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IEEPA 위법 판결로 아시아 주요 수출국의 대미 수출 부담이 완화되며 석유화학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2) 물가 부담 완화로 글로벌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 3) 4/1일 시작될 중국의 증치세 환급 폐지로 고객사 입장에서는 향후 판가 상승을 대비하기 위한 재고 확보 움직임도 불가피하다. 4) 15차 5개년 계획이 확정되고 중국 석유화학 구조조정 강도가 확인될 양회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중국 설비 폐쇄 규모 및 운영 비용 증가 부담 등이 확인된다. 5) 에틸렌을 제외하면 지난 3~4년 간의 대규모 증설이 일단락되고 대부분의 석유화학 제품의 증설이 제한된 국면에 진입한다.

상반기 석유화학/정유 업황 개선 전망. 춘절 종료 후 강한 상승세

Section 232/301에 근거한 재구축 시나리오 가능성에도 불구, 단기적으로는 신규 관세 도입 전 미국 수입업체들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아시아 석유화학은 물론 공장 가동 정상화에 따른 석유제품 디젤 수요 개선 흐름이 기대된다. 적어도 3월까지 석유화학/정유 시황의 개선을 전망하며, 중국 구조조정의 강도 및 경기 부양 강도에 따라 성수기인 4~5월에도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24일 춘절 종료 후 첫 거래일에서 중국 석유화학 선물 가격(BR/천연고무 +4%, PTA +3%, PE/PP +2%, EG +1%) 및 현물 가격(SM +4%, EG +2%, 페놀/PX +1%)은 강세를 보였다. 12월 중순부터 3개월 째 나타나는 상승 흐름이다. 2027~28년 증설이 제한된 품목인 석유제품, PX/BTX, 합성고무/천연고무, 유기실리콘, 스판덱스, MDI/TDI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선호한다. Top Picks는 S-Oil,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화학, 효성티앤씨, KCC, 롯데정밀화학, 대한유화다.

글로벌 이슈

2026년 2월 24일 | 해외 산업 이슈

AI & 보안

사이버보안 주가급락, 노이즈를 걷어내면 보이는 것들

AI 공포 심리, 사이버보안 섹터로 전이되며 주가 급락

AI의 소프트웨어 대체 우려로 섹터 전반에 투자자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앤스로픽의 '클로드 코드 보안' 발표가 사이버보안 종목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발표 이후 2일 동안 주요 보안 종목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 클라우드플레어(NET), 지스케일러(ZS) 등은 15% 이상 급락했고, 보안 섹터 지수(CIBR)는 6% 하락했다. 해당 기능과 주요 보안 업체들의 서비스 영역이 본질적으로 달라 연관성이 낮음에도, AI가 보안 산업 전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공포 심리가 촉발된 것으로 해석된다.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워크데이 등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SaaS 종목들이 AI 관련 불확실성으로 2025년 중반 이후 약세를 이어온 점이 보안 섹터로 불안 심리를 전이시키며 공포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보안 분야에 대한 AI 위협 우려가 과도한 이유

1)'클로드 코드 보안'은 개발 단계에서 소스 코드를 분석해 자동으로 패치를 제안하는 기능으로 보안 분류상 애플리케이션 보안 내 코드 스캐닝 사업자들(원 솔루션 업체들)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PANW, CRWD, NET 등 주요 보안 사업자의 주력 분야(네트워크/엔드포인트/클라우드/아이덴티티/엣지 보안)는 런타임, 운영 환경에서의 탐지, 차단, 집행이 핵심으로, '클로드 코드 보안'과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2) AI모델 사업자가 향후 개별 보안 기능들을 추가하더라도, 기존 핵심 영역에서의 보안 강자를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규모 설치 기반과 네트워크 장악력, 장기간 축적된 침해 관련 데이터, 운영 환경에서 요구되는 높은 신뢰성 등은 보안 분야에서 AI 사업자들이 유의미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요인이다. 3) PANW, CRWD, NET 등 대표 보안 벤더들은 여러 영역에 걸쳐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경쟁력이 강력하며, AI 모델 사업자가 개별 기능 추가 만으로 이들을 대체하기 힘든 특성이다.

단기적으로 변동성 요인, 그러나 AI는 주요 보안 사업자에게 기회

AI는 사이버보안 산업에 위협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 AI가 코드를 읽고 취약점을 찾을 수 있다면 사이버공격 역시 AI를 악용해서 기술이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이 확장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AI가 보안 영역을 잠식하기 보다는 기존 보안 강자들이 AI를 활용해 역량을 강화하고 TAM을 넓히는 기회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AI 위협에 대한 불안심리가 쉽게 사라지기 보다는 주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AI가 사이버보안 TAM을 키우고 그 안에서 점유율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PANW, CRWD, NET 등 주요 보안 사업자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관점은 유효하며, 중장기적으로 높은 상승 잠재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2026년 2월 24일 | Global Equity

재팬토바코 (2914.JP)

4Q25 Re: 매출 기대치 상회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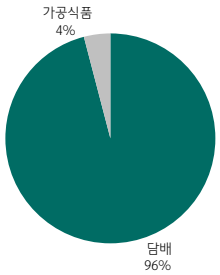
TP(컨센서스)	6,158 JPY
CP(2.23)	5,893 JPY

Key Data

국가	JAPAN
상장거래소	Tokyo
산업 분류	필수소비재
주요 영업	담배
홈페이지	www.jt.com
시가총액(십억USD)	11,836.0
시가총액(조원)	110.6
52주최고/최저(USD)	6182/3716
주요주주 지분율(%)	
JAPAN MINISTRY OF FINANCE	33.34
재팬토바코	11.2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4.3	22.0	58.1
상대	(0.6)	(0.8)	18.9

매출구성



Financial Data (십억 JPY)

투자지표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	3,056.7	3,467.7	3,655.5	3,824.5
영업이익	314.2	853.7	938.8	1,013.7
순이익	179.2	510.2	624.6	683.8
EPS(USD)	261.0	287.4	352.3	385.9
EPS(YOY, %)	(3.9)	10.1	22.6	9.5
ROE(%)	4.7	13.0	15.6	16.6
PER(배)	40.4	20.1	16.9	15.4
PBR(배)	1.9	2.5	2.5	2.4
배당률(%)	4.8	4.1	4.3	4.6

자료: 재팬토바코, 하나증권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4Q25 Re: 매출 기대치 상회

4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8,336억엔(YoY 10.2%), 1,041억엔(YoY 흑전)을 기록했다.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손익은 캐나다 합의금 관련 기저 및 믹스 개선에도 이란과 터키 등의 환율 약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체 담배 출하량은 1,392억개비(YoY 2.4%)를 시현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일본 포함)/ 서유럽/ EMA의 출하량이 각각 YoY 2.8%/ -2.6%/ 7.0% 기록했다. ① 일반 담배 출하량은 1,353억개비(YoY 1.7%)를 시현했다. 벡터 그룹 인수 및 EMA 지역(터키, 러시아 등)에서의 판매 호조가 주효했다. 브랜드별로는 Winston(YoY 6.0%)과 Camel(YoY 6.3%)이 견조한 성장을 시현했다. ② 전자 담배 출하량은 39억개비(YoY 30.4%)를 기록했다. 'Ploom'의 출하량은 'Ploom Aura' 성장 기인해 YoY 40.7% 증가했다.

'Ploom Aura' 전환 가속화

4분기 재팬토바코의 궐련형 전자담배 출하량은 전년대비 30.4% 증가한 39억개비를 시현했다. 내수는 전년대비 27.6% 증가한 32억개비를 시현했다. 내수 점유율은 16.4%(YoY 2.4%p up, QoQ 0.5%p up)를 기록했다. 전자담배 스틱 점유율은 14.4%(YoY 2.8%p up, QoQ 0.4%p up)를 시현했다. 지난 5월 말 출시된 'Ploom Aura' 및 프리미엄 스틱 'EVO' 기반으로 'Ploom' 시리즈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loom' 출시국은 28개국으로 기록했다. 'Ploom Aura' 출시국은 4분기 기준으로 총 17개국이며, 2월에 19개국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26년 말까지 'Ploom'이 진출한 전체 시장에서 'Ploom Aura'로의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6년 가이던스 제시

재팬토바코는 26년 연간 가이던스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3조 6,970억엔(YoY 6.6%) 및 9,210억엔(YoY 6.2%)을 제시했다. 전자 담배 관련해 3년간 약 8,000억엔 수준의 투자를 계획중이며, 약 80% 수준이 마케팅 관련 비용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5월 경 인수한 영국의 'Flavour Warehouse'를 통해 액상 전자담배 포트폴리오도 추가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26 ~ 28년(3개년) 담배 사업 성장률은 high single digit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배당성향은 75% 수준을 목표로 설정했다.

2분기 중국 AI 업종 투자 전략

중국 AI | 2026.2.24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1. AI 업종 2분기 투자 전략

춘절 이후 주요 AI 섹터 강세 시현, 반도체 장비/자율주행 섹터 선호

- 중국 AI 업종은 춘절 연휴 전후 기술 업데이트 또는 국산화 기대감이 반영되며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팹리스, 휴머노이드 등 일부 섹터가 급등세를 시현했다. 단기적으로 주가 랠리에 따른 부담이 있는 상태로 3~4월 실적 시즌 어닝 쇼크 등 악재 출현 시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2분기 AI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서는 고평가된 파운드리 업종보다 이익 가시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장비 기업을 선호한다. AI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는 AI 모델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여전히 저평가 된 콰이쇼우(1024.HK), 알리바바(9988.HK)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은 상황이며, 로보틱스 산업에서는 상용화를 통한 실적 가시성, 기술 성숙도를 감안 시 휴머노이드 섹터보다는 자율주행 기업을 선호한다.

2. AI 반도체 섹터

팹리스(설계): 중장기 수혜 강도 더욱 높아질 섹터, 단기적으로 바이두 추천

- 2026년에도 중국 정부 주도의 AI 반도체 국산화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은 오더 증가 기대감에 최근 2월 주가 급등세를 시현했다. Biren Technology(6082.HK)의 주가는 자체 개발 AI 칩이 주요 로컬 AI 모델(ZhipuAI/MiniMax/DeepSeek)과 호환 완료했다는 소식에 2월 이후 강세 흐름을 보였다. 단기적으로 반도체 국산화 기대감과 분기별 실적에 따라 주가 등락이 이어질 수 있으나, 중국 정부의 AI 기술 국산화 의지가 강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협력 확대에 따른 Huawei, Biren Technology, Moore Thread, Kunlunxin(Baidu) 등 상위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수혜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AI 반도체 팹리스 업종에서는 2026년 대규모 외부 수주 증가 기대감이 큰 바이두(9888.HK)를 추천한다.

파운드리(제조): 대규모 증설에 따른 마진 하방 압력 지속될 전망

-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인 SMIC와 화홍반도체는 최근 몇 년 간 대규모 증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으로 2026년에도 마진 하방 압력 지속될 전망이며, 2025년 AI 반도체 국산화 기대감에 따른 주가 급등으로 인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중국 선단공정 파운드리인 SMIC A주/H주의 경우 2026년 선행 PER이 183배/53배 수준으로 글로벌 Peer 기업인 TSMC(17배) 대비 현저히 고평가 된 상태이다.

장비: 2026년 견조한 수주 실적 기대

- 중국 파운드리 및 메모리 기업의 공격적 증설에 따라 로컬 반도체 장비 수요 또한 견조할 전망이다. 미국 반도체 제재 강화에 대비해 2023~25년 글로벌 첨단 장비를 집중적으로 수입해 대규모 증설을 진행한 SMIC/메모리(CXMT/YMTC) 등 기업의 경우 향후에도 글로벌 장비와 함께 투입할 로컬 장비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북방화창과 같은 상위 장비업체는 2026년에도 견조한 탑라인 및 이익 성장이 기대되며, 로컬/글로벌 Peer 대비 합리적 밸류에이션으로 투자 매력이 높다.

3. AI 소프트웨어 섹터

AI 모델 기술력 높지만 저평가된 콰이쇼우와 알리바바 추천

- 중국의 주요 대형 AI 모델 스타트업들이 춘절 기간 신규 AI 모델을 출시함에 따라 상장사인 ZhipuAI/MiniMax의 주가는 급등세를 시현했다. 또한, 최근 콰이쇼우(Kling AI)에 이어 바이트댄스(SeeDance 2.0)의 생성형 비디오 모델(텍스트→비디오) 성능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중국 AI 모델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강화되고 있다. 반면, 외국인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통 대형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바이두/텐센트 등은 1)1월 말 이후 대외 이슈 영향, 2)중국 정부 규제 우려(우대 세율 철회 루머, 과잉 경쟁 감독관리 강화) 등으로 2월 들어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3월 실적 시즌을 통해 AI 관련 실적 호조가 확인된다면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모델 기술 잠재력이 높지만 저평가 된 콰이쇼우(1024.HK)와 알리바바(9988.HK)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다는 판단이다.

4. 로보틱스 섹터

휴머노이드: 완제품보다 핵심 부품 기업 선호

- 단기적으로 춘절 갈라쇼 휴머노이드 영상 공개로 휴머노이드 섹터는 춘절 연휴 직후 강세를 시현했다. 2026년 주요 휴머노이드 완제품 기업의 대규모 양산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나 실질적으로 제조 현장에서 상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 초기 단계임을 고려 시 향후 몇 년간 양산/수주 규모, 실적 불확실성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투자 관점에서는 완제품 기업보다는 중국과 글로벌 수주 수혜가 기대되는 핵심 부품 기업을 선호한다. 희토류 기반 영구자석 제조업체인 금력영자(6680.HK), 엑츄에이터 모듈 제조사인 헝리유압(601100.CH), 탁보그룹(601689.CH)을 추천한다.

로보택시: 상용화 속도와 기술 성숙도 휴머노이드보다 우위

- 로보틱스 산업에서는 휴머노이드 섹터보다 중단기 상용화 기대감과 기술 성숙도가 높은 자율주행 기업을 선호한다. 완성차 자율주행 기능 탑재 확대 및 로보택시 상용화의 수혜가 가능한 라이다 제조사인 허사이테크(HSAI.US), 자율주행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호라이즌 로보틱스(9660.HK), 2026년 중국 및 글로벌 상용화 확대 기대되는 로보택시 스타트업 위라이드(WRD.US), 포니AI(PONY.US) 등을 추천한다.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40	신규	-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신규	-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KODEX 미국AI테크 TOP10 (485540.KS)	2025.07.22	12,290	13,940	13.4%	•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핵심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Magnificent7와 AI5 기업들에 집중하는 테마 ETF • 상용화의 영역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버린 AI, 신제품 교체 수요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 중국 수출 규제 완화와 트럼프 정부의 AI 육성 정책 모멘텀도 긍정적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0,640	58.8%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QDF (미국 퀄리티 배당 주식)	2026.02.02	82.93	82.81	-0.1%	• 우량 배당주 선별 투자. 미국 상장 기업 중 펀더멘털(수익성, 경영 효율성, 현금흐름)이 우수하면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퀄리티' 기업들로 구성 • 정책 변화와 금리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은 하락 방어력이 높음. 성장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창출에 집중하는 균형추 역할 기대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5.15	20.8%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412.88	21.8%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6.38	18.7%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2/23	190,100	200,000	5.21%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2/23	168,800	166,700	-1.24%	• 4Q25 실적의 특징은 수수료이익 대폭 증가, 기말배당 큰폭 확대, 주주환원 재원 확보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도 긍정적 요인
SK이노베이션 (096770.KS)	2/23	127,600	137,700	7.92%	• E&S 합병에 따른 시가총액 상승가치 7조원 제외 시 현재 시가총액 S-Oil과 유사한 수준 • 정제처리량 Capa 115만톤으로 S-Oil 대비 약 2배인 점 감안 시 저평가 영역
삼성증권 (016360.KS)	2/23	114,500	107,900	-5.76%	• HNWI 고객수 390만명(YoY +48.9%), 고객자산 432조원(YoY +42.8%) 수준으로 확대 • 발행어음 인가 취득 시 IB와 리테일 간의 사업 시너지 효과 기대
대한항공 (003490.KS)	2/23	25,150	26,500	5.37%	• 4Q25 항공우주 사업부 매출액 3,08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 • 항공우주 사업부가 대한항공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는 모습
아이에스동서 (010780.KS)	2/23	32,050	32,050	0.00%	• 2026년 4월, 3.5조원 규모의 대구 자체사업 분양을 결정함에 따라 외형 레벨업 예상 • 지방광역시 집값 반등과 대구 미분양 감소 등 긍정적 시그널 감지
에코프로비엠 (247540.KQ)	2/23	214,000	213,500	-0.23%	• 4Q25 Review 매출액 4,992억원(YoY +7.0%), 영업이익 410억원(YoY 흑자전환) 기록 • 3월 초 CEO 주관 미래 기술 로드맵 발표 기대감
하림지주 (003380.KQ)	2/23	16,660	16,970	1.86%	• 돈가 상승 및 팬오션 실적 회복 기인해 실적 개선 흐름 기대 • 저평가 매력 재차 부각될 것으로 예상
시지메드텍 (056090.KQ)	2/23	2,305	2,790	21.04%	• ECM 스킨부스트 시지리알로 인젝트 파인 1Q26내 출시 예정 • 대웅그룹 관계사 편입 후 사업 재편 완료. 실적 성장 본격화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51%	-0.25%p	+42.97%	+7.2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아이에스동서 (010780.KS)	2/23	32,050	32,050	0.00%	• 2026년 4월, 3.5조원 규모의 대구 자체사업 분양을 결정함에 따라 외형 레벨업 예상 • 지방광역시 집값 반등과 대구 미분양 감소 등 긍정적 시그널 감지
KB금융 (105560.KS)	2/9	149,300	166,700	11.65%	• 4분기 실적의 특징은 수수료이익 대폭 증가, 기말배당 큰폭 확대, 주주환원 재원 확보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도 긍정적 요인
키움증권 (039490.KS)	2/9	405,000	458,000	13.09%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오리온 (271560.KS)	2/9	124,000	137,400	10.81%	• 25년 상반기 톤당 만달러까지 상승했던 카카오 가격 현재 6천달러 내외까지 하락 • 중국 내 주요 부자재 및 원자재도 가격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원가 부담 완화 예상
이수스페셜티케미컬 (457190.KS)	2/9	100,000	97,500	-2.50%	• 전고체 배터리 소재 '황화리튬' 대량 제조 가능한 국내유일업체 •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이드 산업 개화와 맞물리며 조기 상용화 기대감 상승
케이엠더블유 (032500.KQ)	2/2	18,920	19,060	0.74%	• 삼성과 더불어 에릭슨, 노키아로의 매출 확장 가능성 상승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기아 (000270.KS)	1/12	133,200	174,000	30.63%	•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 출시 및 판매 본격화로 신차 효과 통한 물량 확대 지속 기대 • 이익 개선및 그룹미래 모빌리티 사업구체화 통한 밸류업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1/2	119,900	200,000	66.81%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1/2	651,000	1,005,000	54.38%	• 4Q25 Review 매출액 32.8조원(YoY +66.0%), 영업이익 19.2조원(YoY +137.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한국항공우주 (047810.KS)	1/2	114,400	183,600	60.49%	• 일회성 비용 부재와 완제기 수출 부문의 일시적 믹스개선으로 3Q25 수익성 개선 • 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S-Oil (010950.KS)	1/2	83,000	114,100	37.47%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1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0.24%	-5.49%p	+30.24%	-5.49%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독일 2월 IFO 기업환경 (88.6, 1월 87.6)	▪ 미국 12월 제조업 수주 (-0.7%, 11월 2.7%)	▪ 유로존 2월 전년대비/전월대비 CPI 발표 (E --/--, -0.5%/1.7%)	▪ 한국 2월 금융통화위원회 (E 2.5%, 1월 2.5%)	▪ 일본 2월 CPI 발표 (E --, 1월 2.00%) ▪ 독일 2월 IFO 기업환경 (E --, 1월 87.6)	
3.1	3.2	3.3	3.4	3.5	3.6	3.7
한국 2월 수출입 동향 발표 수출 증가율 YoY (E --, 1월 33.9%)	▪ 중국 2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E --, 1월 50.3) ▪ 미국 2월 ISM 제조업 지수 (E --, 1월 52.6)	▪ 일본 1월 실업률 발표 (E --, 12월 2.6%)	▪ 중국 2월 제조업 PMI 발표 (E --, 1월 49.3) ▪ 미국 2월 ADP 취업자 변동 (E --, 1월 22K)	▪ 미국 2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 (E --)	▪ 한국 2월 전년대비/전월대비 CPI 발표 (E --/--, 1월 2%/0.4%) ▪ 미국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수 변동 (E --, 1월 130K)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